

# | 해양역사 |



# 동아시아 바다를 지배한 비극적 영웅 장보고

| 박종오 | 목포대학교  
kfolk@naver.com

## 〈차 례〉

1. 머리글
2. 장보고
3. 해상왕국의 본거지 청해진
4. 선상생활
5. 덧없이 무너진 해상 영웅

## 1. 머리글

제45대 신무대왕(神武大王)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협사(俠士)인 궁파(弓巴)에게 말하기를,

“나는 같은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원수가 있다. 네가 나를 위해 능히 그를 제거해 준다면 왕위를 차지한 후에 그대의 딸을 취하여 왕비로 삼겠다”

라고 하였다. 궁파는 이를 허락하고, 마음과 힘을 같이 하여 군대를 일으켜 경사(京師)로 쳐들어가서 그 일을 이루었다. 이미 왕위를 빼앗고 궁파의 딸을 왕비로 삼으려고 했으나 여러 신하들이 극히 간하여 말하기를,

“궁파는 미천한 출신이니 왕께서 그 딸을 왕비로 삼는 것은 불가합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왕이 그 말을 따랐다. 이 무렵 궁파는 청해진(淸海鎭)  
에 있으면서 군진을 지키고 있었는데, 왕이 약속을 어긴 것을 원망하여  
반란을 모의하려 하였다. 이때 장군 염장(閻長)이 이 말을 듣고 아뢰기  
를,

“궁파가 장차 충성스럽지 않은 일을 하려 하니 소신이 청하건대 그를 없  
애겠습니다”

라고 하니, 왕이 기뻐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염장은 왕의 뜻을 받들어 청해진으로 가서 사람을 통해 말하기를,

“나는 이 나라의 임금에게 작은 원한이 있기에 명공에게 의지해 신명을  
보전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였다. 궁파가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말하기를,

“너희 무리들이 왕에게 간하여 나의 딸을 폐하게 하고서 어찌 나를 보려  
고 하느냐”

고 하였다. 염장이 다시 [사람을] 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백관(百官)들이 간한 것입니다. 나는 그 논의에 참여하지 않았으  
니 명공께서는 의심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였다. 궁파가 이 말을 듣고 청사에 불러들여서 말하기를,

“경(卿)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왔는가”

라고 하니, 염장이 말하기를,

“왕에게 거스른 일이 있어 공의 막하(幕下)에 의탁해 해를 면하려 합니  
다”

라고 하였다. 궁파가 말하기를,

“잘 왔다”

라고 하며 술자리를 마련하여 매우 기뻐하였다. [이때] 염장이 궁파의 장  
검(長劍)을 취하여 그를 베었다. 휘하의 군사들이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  
며 모두 땅에 엎드렸다. 염장이 (군사들을) 경사로 이끌고 와서 복명(復  
命)하여 말하기를,

“이미 공파를 베었습니다”라고 하였다. 왕이 기뻐하면서 그에게 상을 주고 아간(阿干) 벼슬을 주었다.

『삼국유사』, 기이 제2(紀異第二), 신무대왕(神武大王) 염장(閻長) 궁파(弓巴)

장보고(張保臯)[신라본기에는 궁복(弓福)으로 썼다와 정년(鄭年)[연(年)은 혹은 연(連)으로 썼다]은 모두 신라 사람이다. 다만 [그들의] 고향과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알 수 없다. [두 사람] 모두 싸움을 잘하였는데, [정년]은 또 바다 속에서 잠수하여 50리를 다녀도 숨이 막히지 않았다. 그 용맹과 씩씩함을 비교하면, [장보고]가 [정년]에게 조금 미치지 못하였다. [그러나] [정년]이 [장보고]를 형으로 불렀다. [장보고]는 나이로, [정년]은 기예로 항상 서로 맞지 않아 서로 아래에 들지 않으려 하였다. 두 사람은 당나라에 가서 무령군소장(武寧軍小將)이 되어 말을 타고 창을 사용하는데, 대적할 자가 없었다.

후에 [장보고]가 귀국하여 [흥덕]대왕을 뵈고,

“중국을 두루 돌아보니,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비로 삼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청해(淸海)에 진영을 설치하여 도적들이 [우리나라] 사람을 붙잡아 서쪽으로 데려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라고 아뢰었다. 청해는 신라 해로의 요충지로, 지금[고려]은 그곳을 완도(莞島)라 부른다.

[흥덕]왕이 [장보고]에게 [군사] 만 명을 주었다. 이후 해상(海上)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파는 자가 없었다.

[장보고]가 이미 귀하게 되었을 때, [정년]은 [당나라에서]관직에서 떨어져 굶주림과 추위에 시달리며 사수(泗水)의 연수현(漣水縣)에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수비하는 장수 풍원규(馮元規)에게,

“내가 동으로 돌아가서 장보고에게 걸식하려고 한다.”

고 말하였다. 원규가,

“그대와 [장보고]의 사이가 어떠한가? 어찌하여 가서 그 손에 죽으려 하는가?”

라고 하였다. [정년]은,

“굶주림과 추위로 죽는 것은 전쟁에서 깨끗하게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물며 고향에 가서 죽는 것이라?”

라고 말하였다. 마침내 [그곳을] 떠나 [장보고를] 찾아 뵈었다. [장보고가]  
그에게 술을 대접하여 극히 환대하였다.

술자리가 끝나기 전에 [희강왕이] 시해되어 나라가 어지럽고 임금의 자리  
가 비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보고가] 군사를 나누어 5천 명을 [정년]  
에게 주며, [정년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대가 아니면 환란을 평정할 수 없다.”

고 말하였다. [정년이] 왕경에 들어가 반역자를 죽이고, [신무왕을] 세웠  
다. [신무왕이] [장보고를] 불러 재상으로 삼고, [정년으로] 대신 청해를 지  
키게 하였다[이것은 신라의 전기(傳記)와는 매우 많이 다르나, 두목(杜  
牧)이 전(傳)을 지었기 때문에 둘 다 남겨 둔다.

… 〈후략〉 …

『삼국유사』, 열전(列傳), 장보고(張保臯)

… 〈전략〉 …

엄장군하고 송장군하고 둘이 세력 다툼을 했다 그거지요. 그래 엄장군은  
여건네 갈옹리 우계 있는 그 엄숙골에가 살았고 송장군은 그 말허자면  
거그 저 장도에가 살았는데 궁께 엄장군이 본래는 송장군의 부하라. 그  
런데 그 엄장군이 배신해가지고 있는 것을 송장군이 규탄을 나가니까 그  
러면 규탄하기 전에 먼저 비여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엄장군  
이 송장군 자고 있는새 밤에 새벽에 거그를 침입을 했다 말입니다. 그  
기맥을 알고 송장군이 까투리, 까투리말이여 있지 않습니까? 그 까투리  
가 되여가지고는 저 건네 가투린여라고 있어요. 산지면 앞에 솔섬 옆에  
가 가트린여라고 거 서 섬이 하나 있어요. 그보고 지금 가트린여라고 그  
란데 왜 그 가트린여라고 그랬냐 헐티며는 그 송장군이 가투리가 되갔고  
그리 날라 갔어요. 그러니까는 이 장소에서 활을 쏘서는 가투리에가 있  
는 송장군을 쏘서 죽였다 그거요. 얼른 말하자면 과거부터 내려온 역사  
가 그래. 그걸 딱 죽에 놓고 보니까는 해가 막 떴다 그래서 제사를 아침

지난 뒤에 해가 뜨며는 꼭 두시간에 지낼 수가 있다. 그래서는 거 아침 해뜨기 전에 꼭 그렇게 모시게 되었어요. 송장군이 아까 말했던 송징 장군이고 엄장군이란건 엄목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엄목장군의 이름을 따서 지금 현 죽청리가 엄목리입니다. 당제는 열나흘날 밤에 지내요.

… 〈후략〉 …

“장짜리 당제 유래”, 문화재연구소, 『구비전승자료』(전남·북도), 계문사, 1987.

## 2. 장보고

신라의 무장(武將)으로 청해진(淸海鎭)을 설치하여 당나라와 신라, 일본을 잇는 해상무역을 주도한 인물 장보고(張保臯, ?~846). 그의 출생과 부모 등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다만, 신라 제46대 왕이었던 문성왕(文聖王, 재위 : 839~857)이 장보고의 딸을 두 번째 왕비로 맞이하려 할 때 신하들이 “지금 궁복은 섬사람인데 어찌 그 딸을 왕실의 배필로 삼으려 하십니까?(今弓福海島人也, 其女豈可以配王室乎. 『삼국유사』, 신라본기, 문성왕)”라는 기록이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정년(鄭年)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청해진으로 온 부분(“굶주림과 추위로 죽는 것은 전쟁에서 깨끗하게 죽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물며 고향에 가서 죽는 것이라?”라고 말하였다. 마침내 [그곳을] 떠나 [장]보고를 찾아뵈었다. “饑寒死, 不如兵死快. 況死故鄉耶.” 遂去謁保臯. 『삼국유사』, 열전, 장보고) 등을 고려해 보면 그의 고향은 청해진이 설치되었던 완도 근처인 것으로 추정된다.

원래의 이름은 ‘궁복(弓福)’으로 전해지며, 『삼국유사』에는 ‘궁파(弓巴)’라고 기록하고 있다. 『삼국유사』에는 “말을 타고 창을 쓰는 데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그의 무예가 뛰어났음을 보여준다.

미천한 신분 탓인지 장보고는 신라가 아닌 당나라에서 무령군소장(武寧軍小將)이라는 벼슬을 하게 된다. 이 무렵 장(張)이란 성을 취하고 이름을 보고(保阜)로 개칭한 것으로 보이는데, 일본 측 기록에는 ‘장보고(張寶高)’로 되어 있다. 당나라의 감군 정책이 시행되자, 군직을 버리고 무역업에 종사한 것으로 보이는데, 중국 산둥성(山東省) 적산포(赤山浦)에 법화원(法花院)을 창건하였다. 이 때 장보고는 신라 사람들이 해적에게 붙잡혀 와 노예로 팔리는 것을 수없이 목격한 것으로 보인다.

828년 신라에 귀국한 장보고는 흥덕왕(興德王, 826~836)에게 “도적들이 신라 사람들을 붙잡아가지 못하도록” 청해(淸海)에 진(鎭)을 설치하도록 요청하였고, 흥덕왕은 군사 1만 명을 주면서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였다. 청해진은 당과 일본, 신라의 해상무역을 주관하는 해상왕국의 본거지가 되었다.

836년에 흥덕왕이 죽은 후 신라에서는 왕위 쟁탈전이 벌어졌는데, 장보고는 김우징을 신문왕(神武王)으로 즉위시킨다. 문성왕 7년 745년에는 딸을 문성왕의 차비(次妃)로 들이려고 했으나 진골귀족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반란을 꾀하였다가 846년 문성왕이 보낸 자객(刺客) 염장(閻長)에게 피살되었다.

### 3. 해상 왕국의 본거지 청해진

전남 완도 장좌리 마을 앞바다에는 전복을 얹어놓은 듯 둥글넓적한 조그마한 섬이 하나 있다. 밀물 때는 섬이 되지만, 물이 빠지는 썰물이 되면 육지와 연결되는 섬, 바로 청해진의 본거지로 추정되고 있는 ‘장도(將島)’다.

장도에는 섬 입구에서부터 남쪽 해변 선착장까지 해안을 따라 약 330m의 목책(木柵)이 설치되어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목책은 모두 1000여개인데, 직경 40~80cm 크기의 소나무로 만든 통나무가 해안을 따라 일렬로 촘촘하게 땅속에 묻혀 있다. 갯벌에 묻혀 있던 목책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 1959년 태풍 사라호가 장도의 바다를 뒤집어 놓으면서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도 청해진의 유물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을 통해 접안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신라시대의 인위적 시설물임을 확인한 것이다.

장보고가 청해진을 만든 시기는 흥덕왕 3년(828년)이다. 장보고가 오늘날의 완도인 청해에 진을 만든 이유로 『삼국사기』에서는 “도적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붙잡아 서쪽으로 데려가 노비로 팔아먹지 못하게 함”을 들고 있다. 그런데 조금 당황스러운 것은 왕이 바로 이에 응해 군사 1만을 내 주고 진(鎭)의 설치를 허락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삼국사기』 신라본기 흥덕왕 3년 4월조에는 “이졸만인 진청해(以卒萬人 鎭淸海)”로 기록하고 있다. 이 만인의 군졸은 신라 조정의 승인 하에 백성들로 군대를 조직하여 진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함에도 골품제라는 엄격한 신분질서 속에서 출신 성분조차 알 수 없는 장보고에게 군대지휘권과 대사(大使) 직함까지 내리는 등의 대접을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이 부분은 장보고의 활동 부분을 살펴보아야 이해가 가능할 듯 싶다. 장보고는 재당시절 적산지방에서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당나라 무령군소장으로 있었던 823년에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을 창건하였다. 이 사찰은 1년 수확량이 500섬이나 되는 토지를 기본재산으로 건립되었는데, 이후 적산법화원은 장보고 무역활동의 기반이 되었다. 아울러 일본 헤이안 시대의 승려인 엔닌(圓仁, 794~864)이 쓴 『입당구법순례행기(入唐求法巡禮行記)』에 824년 일본에 도착한 장보고가 엔



닌을 배에 태워 당나라로 돌아갔다는 기록이 전하는 것으로 보아 그 이전부터 장보고는 당나라와 일본을 오가며 무역 활동을 벌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미 장보고의 해상활동은 당나라와 일본에까지 미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점은 신라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동아시아의 거부(巨富)인 장보고의 요청을 신라가 쉽게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경제적, 군사적인 부분에 있어 상호간 모종의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여하튼 청해에 진을 설치한 장보고는 해적 토벌뿐만 아니라 서남해 해상권을 장악하였다. 재일신라인 사회와 재당신라인 사회를 연결하는 무역망을 구축, 중계무역을 통해 엄청난 부를 축적하였다. 완도의 작은 섬에 자리한 청해진이 동아시아의 바다를 장악하는 해상왕국의 본고지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 4. 권력 싸움에 끼어들다

청해진을 본거지로 당나라와 신라, 일본 삼국에서 모두 국가 조직과 별도로 움직이던 독립 무역선단을 이끈 장보고는 이미 독립적인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 장보고에게 설진을 허락했던 흥덕왕이 아들이 없이 죽자, 흥덕왕의 사촌 동생인 상대등 김균정과 흥덕왕의 조카인 김제룡이 왕위를 두고 다투었다. 이 싸움에서 김균정이 죽고 김제룡이 희강왕이 되었고, 김균정의 아들 김우징은 가족과 함께 청해진으로 달아나 장보고에게 몸을 의탁했다. 왕실의 권력 다툼을 피해 몸을 맡길 수 있을 만큼 장보고의 청해진은 막강 권력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신라의 제43대 왕인 희강왕(僖康王, 재위 : 836~838)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안 되어 김명과 김이홍 등의 반란으로 자결한다. 이어 김명이 민애왕(閔哀王, 재위 : 838~839)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우징은 장보고가 거절하기 힘든 솔직한 제안을 한다.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원수 민애왕을 제거해 달라는 것과 자신이 왕위를 차지하면 딸을 왕비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에 장보고는 군사를 이끌고 서울로 쳐들어갔고, 결국 신무대왕을 즉위 시켰다.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동아시아의 해상무역을 장악하고 그 영향력이 신라를 넘어서 중국과 일본에까지 미쳤던 장보고는 신분 상승을 꾀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

2월에 김양(金陽)이 병사를 모집하여 청해진(淸海鎭)으로 들어가 우징(祐徵)을 만났다. 우징은 청해진에 있으면서 김명(金明)의 왕위 찬탈 소식을 듣고, 청해진 대사 궁복(弓福)에게 말하기를,

“김명은 임금을 시해하고 스스로 즉위하였으며 이홍(利弘)도 임금과 아버지를 죽였으니,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원수입니다. 원컨대 장군의 병사에 기대어 임금과 아버지의 원수를 갚고자 합니다.”

라고 하였다. 궁복이 말하기를,

“옛 사람의 말에, 의(義)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나는 비록 용렬(庸劣)하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라 하고, 드디어 병사 5천 명을 내어 친구 정년(鄭年)에게 주고 말하기를,

“그대가 아니면 화란(禍亂)을 평정할 수 없다.”

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新羅本紀), 민애왕(閔哀王)

“옛 사람의 말에, 의(義)를 보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용기가 없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나는 비록 용렬(庸劣)하나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古人有言, 見義不爲, 無勇. 吾雖庸劣, 唯命是從)”라는 장보고의 말처럼 정말 의로움을 위해 용기를 낸 것인가? 그래 의로움을 위해 사사로운 감정을 추스르고 라이벌이었던 정년을 품었는지도 모른다.

장보고와 정년은 어린 시절부터 힘을 자랑하던 라이벌 관계였다. 정년에 비해 나이는 많았지만, 힘에서 밀렸던 장보고는 ‘나이’로 정년을 누르려 했고, 정년은 ‘기예’로 장보고에게 대들며 서로 아래에 들러하지 않았다. 그런데 훗날 장보고가 칭해진 대사로 이름을 날릴 때 당나라에서 불우한 처지에 놓였던 정년이 장보고를 찾아 걸식하려고 한다. “어찌하여 그의 손에 죽으려 하는가”하는 주변의 걱정을 뒤로하고 장보고를 찾는다. 그런데 정년을 맞이한 장보고는 뜻밖에 술을 대접하여 극히 환대해 주었다. 나아가 술자리가 끝나기도 전에 회강왕이 시해됐다는 소식을 듣고서 군사 5000명을 정년에게 준다. “그대가 아니면 환란을 평정할 수 없다.”는 말과 함께. 이 일을 두고 북송의 학자 이면서 구양수(歐陽脩) 등과 함께 『신당서』를 편찬한 송기(宋祁, 998~1061)는 “서로 질투하지 않고 나라의 우환을 앞세운 것은 진(晉)나라에는 기해(祁奚)가 있고, 당(唐)나라에는 [곽]분양과 [장]보고가 있다(不以怨毒相甚校勘, 而先國家之憂, 晉有祁奚, 唐有汾陽·保臯)”고 하였다. 당나라의 곽분양(郭子儀, 697~781)은 안녹산 난이 일어나자 원수인 임희의 손을 잡고 “사사로운 분한을 품을 때가 아니다”라고 다독거리며 함께 난을 평정했던 인물이다.

여하튼 결국 청해진군은 민애왕을 죽이고, 김우징을 신무왕으로 즉위시켰다. 하찮은 섬사람이 신라의 왕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신무왕은 왕위에 오른 지 6개월쯤 지나 등창으로 죽고, 문성왕이 왕위를 이었다. 왕위에 오른 문성왕은 장보고의 딸을 둘째 왕비로 맞이하려 했으나 신분을 문제 삼아 신하들이 반발한다. 왕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지만 신분까지는 바꿀 수 없었던 모양이다.

어쨌든 장보고는 자기의 딸을 왕비로 들이지 아니한 것을 원망하여 청해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고 『삼국사기』는 기록하고 있다(“청해진에 있던 궁복은 왕이 자신의 딸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원한을 품고 청해진을 근거로 반란을 일으켰다.”, “淸海弓福怨王不納女, 據鎮叛”. 『삼국사기』, 신라본기, 문성왕 8년). 이에 염장(閻長)이 나서 거짓으로 장보고에게 접근한 후 칼로 찔러 죽였다. 결국 문성왕은 851년, 청해진을 파하고 그 주민을 벽골군(碧骨郡 : 지금의 전라북도 김제)으로 이주시킨다. 이로 인해 청해진은 그 기능을 상실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사라진 것은 청해진만이 아니었다. 강력한 해상왕국도 사라졌고, 위대한 민중의 영웅도 사라졌다.

## 5. 덧없이 무너진 해상 영웅

장도의 배후 마을인 장좌리에서는 매년 음력 1월 15일 새벽 당제를 모신다. 새벽이 되면 당제를 지낼 사람들과 당굿을 칠 사람들이 물이 빠져 드러난 갯벌을 걸어 장도로 이동한다. 당제는 장도에 있는 당집에서 지내는데, 해가 막 떠오르는 시각에 맞추어 제를 지내기 시작한다.

장도의 당제는 송징장군(宋徵將軍)을 주신(主神)으로, 정년장군(鄭年將軍)과 해일대사(慧日大師)를 부신(副神)으로 모신다. 여기에서 고민해 봐야할 문제가 있는데, 부신인 정년과 해일대사는 역사상 실존 인물로 찾아지지만, 주신인 송징장군의 경우는 그 실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장보고와 가장 많은 인연을 맺은 정년이 부신으로 모셔져 있는데, 실제 장보고는 신으로 모셔져 있지 않다는 점이나 장도의 토착 해양 세력인 송징이 부하였던 엄 장군과 딸에게 배신을 당

해 엄 장군이 쓴 화살에 맞아 패망했다는 이야기 등을 고민해 볼 때 송징이 장보고와 동일인이 아닌가 하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장보고가 역적으로 몰려 죽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그를 모실 수 없었고, 이에 송징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제사를 지내왔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여하튼 현재 장도에서는 장보고를 신격에 포함시켜 4위를 당제에서 모시고 있다.

송징장군을 숨겨진 장보고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사람들은 장보고를 숨겨야만 했을까? 미천한 신분 출신이었던 장보고가 동아시아 바다를 지배하는 제왕이 되었기에 민중들에게는 영웅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민중이 바라던 영웅이 되지는 못했다. 장보고가 처음 청해진을 세울 때는 분명 노비로 팔려가는 백성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점차 세력이 커지면서 결국 더 많고, 더 큰 권력을 가질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다. 『삼국사기』에서는 문성왕 때 염장이 장보고를 죽이고 청해진을 없앴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유사』에서는 장보고가 죽은 때를 신문왕 때로 기록하고 있다. 신문왕은 장보고 자신이 만든 왕 아닌가? 자신이 욕심 때문에 자신이 만든 왕에게 죽임을 당한 장보고는 더 이상 민중이 염원하던 그런 영웅의 모습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고자 하였는지 모른다. 부하와 딸의 배신으로 목숨을 잃은 활을 잘 쏘는[장보고의 옛 이름인 ‘궁복’은 우리말로 활을 잘 쏘는 ‘활보’ 정도로 옮겨볼 수 있다] 어리석은 송징을 통해 해상왕국을 건설하고도 욕심 때문에 무너진 해상 영웅을 한편으로는 질타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위로하려 했는지도 모른다. 그래 본래의 이름인 활보(弓福)로 만들어 활을 잘 쏘았거나 그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기억했는지도 모른다.



〈완도 청해진 유적(莞島淸海鎭遺蹟)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 장도(將島;將軍島)에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군사유적. 장보고가 설치한 해군기지이자 무역기지로, 중국의 산둥지방과 일본을 연결한 해상 교역의 본거지였다.(사진 출처 : 문화재청)〉



〈완도 장좌리 당제(莞島長佐里堂祭) :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좌리에서 음력 정월 대보름에 지내는 마을공동체의 청해진 유적지인 장도의 당은 당집이며, 섬 정상에 울창한 숲 속에 위치해 있다.(사진 출처 : 필자)〉



〈장도 원목열(將島 圓木列)〉 : 총연장 331m. 탄소연대측정 결과 청해진이 있었던 828~851년 사이에 세워진 것으로 밝혀졌다. 소나무를 해변에 박아 놓은 것으로 접안시설 내지 방벽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사진 출처 : 문화재청, 『장도 청해진 유적발굴조사보고서』, 2001.)